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Parent Related Variables and Victimization by Peer Harassment on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dren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경님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Professor : Kyung Nim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motion regulation, parental support, supervision, psychological control and marital conflict and victimization by peer harassment that affect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sample consisted of 412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percentage, frequency,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everal major resul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First, girls had more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than boys. No sex difference was found in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Second, boys' and girls'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Boys' and girls'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and girls'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arental support, but positive correlations with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victimization by peer harassment. Girls'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arental supervision. Thir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boys' and girls'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and girls'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Victimization by peer harassment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boys'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주제어(Key Words) :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부모변인(parent related variables), 또래에 의한 괴롭힘
(victimization by peer harassment), 행동문제(behavioral problems)

Corresponding Author : Kyung Nim Lee,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Hadan-Dong 840, Saha-Gu, Busan, 604-714,
Korea Tel: +82-51-200-7311 Fax: +82-51-200-7312 E-mail: knlee@dau.ac.kr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오늘날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와 함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거의 매일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성취와 능력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사회는 끊임 없는 경쟁을 요구하여 더 한층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불안, 우울, 분노, 공격 및 일탈행동 등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표출하게 된다. 이는 아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동들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전국 12개 시·도 94개 초등학교 학생 7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 검사에 의하면 불안이나 우울, 공포 등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신체화 장애의 학생이 33.1%로 보고되었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11.6%, 학습문제의 학생이 20.3%로 초등학교 4명 중 1명은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일보, 2006). 아동의 행동문제가 장기화 되고 적절한 중재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며, 심각한 학교 부적응을 야기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 부적응으로 발전될 수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Patterson, Babara, DeBaryshe, & Ramsey, 1989, 정문자, 김문정, 2004, 재인용).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예방은 빠를수록 효과적이므로 특히 정서 및 행동문제가 급증하는 청소년기 이전의 학령기 후기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련요인을 파악함은 의의 있다고 본다(전연진, 정문자, 2003; 정윤주, 2004).

행동문제란 아동의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로(김선희, 2000) 그 유형과 특성은 크게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로 구분된다(Achenbach, 1991). 내재화 행동문제는 우울, 불안, 위축을 비롯하여 신체증상을 포함하는 심리적으로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의미하며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과 공격행동을 포함하며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행동문제를 의미한다(김선희, 2000; 오경자, 이해련, 1990; Achenbach, 1991).

행동문제의 원인과 발달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종합하면 정서 및 행동문제는 단일한 요인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Cicchetti & Toth, 1998). 아동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다양한 요인 중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관련변인과 또래관계 변인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행동문제의 개인차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성별 차이이다. 학령기 후반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불안이나 우울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으며(심희옥, 1997; 전숙영, 2007; 정윤주, 2004; 한미현, 1996) 남아는 신체적 공격 및 비행 등의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민정, 도현심, 2001; 이경남, 2006; 전연진, 정문자, 2003; McGee, Freehan, Williams, & Anderson, 1992). 그런데 우울, 불안, 위축, 신체증상의 내재화 행동문제(전연진, 정문자, 2003)와 비행과 공격성의 외현화 행동문제(정현희, 정순화, 2007)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해 아동의 행동문제의 성별차이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위해 이에 관한 연구가 더 보완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아동 특성 변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인 중의 하나이다.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서적 표출규칙을 따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하는 능력으로(Shaffer, 1999)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적절하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인 자극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포함된다(박서정, 2004). 이러한 능력은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두 측면으로 정의되며 상황에 맞게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조화롭게 표현하는 능력이 기초가 된다(박서정, 2004). 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에 크게 기여한다(Parker & Asher, 1987). 반면 정서조절능력의 결핍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충동성, 공격성 등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박서정, 2004; 한유진, 2006).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남아의 경우 부적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경우 정적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한유진, 2004)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황혜정, 1999) 여아의 반응적 공격성과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지영, 2003).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해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중요한 예측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의 하나는 부모관련 변인이다. 부모는 아동과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정과 지지 및 지원은 아동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과 아울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반면 부모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불안정한 표상을 형성하여 심리적인 불안과 함께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표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아동의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이 적었으며(심희옥, 1997) 어머니의 지지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다(이영신, 2003).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에 유의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으며(장연정, 2002) 가족의 지지를 낮게 지각한 아동들이 교사와 부모가 평정한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강성희, 1991). 이처럼 부모지지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부모지지와 함께 부모의 감독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아동의 생활과 행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잘못된 생활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적절히 중재하고 감독할 때 아동은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적응을 보일 수 있다. 부모감독과 중학생의 행동문제는 부적관계가 나타났으며(황숙영, 2007) 부모감독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연구(이경남, 2008)는 부모의 감독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됨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부모요인이 아동의 바람직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심리통제란 부모가 자녀의 개인적인 정서, 심리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며, 자녀의 사고, 감정, 자기표현 등 아동의 개인적, 심리적인 영역에 대하여 통제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Barber, 1996, 전숙영, 2007, 재인용).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과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행동통제와는 달리 아동의 개인적인 정서 및 심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행동문제 및 적응의 위험요인이 됨이 밝혀지고 있다(정윤주, 2004).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 우울 및 위축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 혹은 공격성, 약물사용 및 비행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김희화, 2003; 오환영, 2008; 전숙영, 2007; 정윤주, 2004; Barber, 1996; Pettit, Laid, Dodge, Bates, & Criss, 2002).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부모요인 중의 하나가 부부갈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은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

고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아동의 행동문제의 위험요인이라 볼 수 있다(Shaffer, 1999).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과다행동, 미성숙행동, 불안행동과 위축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권영옥, 이순형, 1999).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 불안, 비행, 충동성,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미경, 김영희, 2003). 이처럼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이후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또래관계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또래와 어떤 경험을 하는가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서적인 지지를 경험하는 아동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바람직한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보인다. 그러나 또래로부터의 거부나 괴롭힘을 경험했던 아동은 심리적인 부적응과 외현적인 행동문제를 표출 할 수 있다. 또래관계와 적응에 관련된 30여 편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령기 동안 또래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또래와 좋은 관계를 경험했던 청소년들보다 심각한 심리적 문제, 학교 탈락 및 일탈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Parker & Asher, 1987; Parker, Rubin, Price, & Deroiser, 1995, Shaffer, 1999, 재인용). 그리고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박종효, 2005)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공격피해나 따돌림은 심리적 문제나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박종효, 2004; 한중철, 김인경, 2000). 따라서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개인 특성으로 정서조절능력, 부모관련 변인으로 부모의 지지, 감독, 심리적 통제와 부부갈등 그리고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변인이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았으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부모 및 또래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 변인의 관계에 대한 통합된 시각을 갖기 위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관련 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포함하여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련변인이 행동문제의 유형 혹은 하위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김선희, 2000; 박종효, 2005; 이영신, 2003)에 의해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예측변

인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김민정, 도현심, 2001; 한미현, 1996)되고 있으며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도 밝혀지고 있다(김선희, 2001).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인의 관계에 대한 유형별, 성별 접근을 통하여 행동문제 유형별로 관련변인이 남아와 여아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토대로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및 부모변인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와 이들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행동문제를 중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대처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행동문제(내재화 및 외현화)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부적응적, 적응적), 부모변인(부모의 지지, 감독, 심리적 통제 및 부부갈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는 성별로 어떠한가?
3.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상대적 영향력은 성별로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립 초등학교 2개교의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412명의 아동이다. 이 중 남아가 209명(50.7%), 여아가 203명(49.3%)이었으며 5학년은 200명(48.5%), 6학년은 212명(51.5%)이었다.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 연령은 41~45세가 202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6~40세 및 46~50세가 각각 87명(21.1%)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35~40세가 182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1~45세가 145명(35.2%)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208명(50.5%), 초대 졸업 이상이 190명(46.1%)이고,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242명(58.7%), 초대졸 이상이 153명(36.9%)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과 기술직이 181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피고용기능인이 99명(24.0%) 자영업이 94명(22.8%)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취업 유·무를 살펴보면 취업 유 222명(53.9%), 취업 무 171명(41.5%)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 295명(7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부유한 편 70명(17.0%)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행동문제 척도와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그리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개발한 Youth Self-Report(YSR)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2001)가 번안하여 표준화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 K-YSR)를 사용하였다. K-YSR는 1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해당하는 6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재화 행동문제는 위축 7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위축과 우울/불안 요인에 공통된 한 개 문항은 제외하고 총 31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의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K-YSR의 각 문항은 아동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에 대해 '전혀 아니다' 0점에서 '자주 그렇다' 2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척도 문항의 예를 들면 위축에는 '남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신체증상에는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 우울/불안에는 '외롭다고 느낀다', 공격에는 '말다툼을 자주 한다', 비행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은 위축, 우울/불안 및 신체증상의 내재화 및 공격 및 비행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내재화 행동문제 .90, 외현화 행동문제 .86으로 나타났다.

2)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서정(2004)이 Schields와 Cicchetti(1995)에 의해 개발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 List(ERC)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12문항과 적응적 정서조절 8문항 모두 20문항의 어머니 평정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제외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 10문항 적응적 정서조절 8문항의 총 18문항 아동 평정용으로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요인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18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cree 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2개 요인으로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법을 실시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모두 10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6.88%를 설명하였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로 명명 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8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1.15%를 설명 하였으며 적응적 정서조절로 명명 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요인까지 설명되는 변량은 모두 48.03%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를 들면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을 낸다’ 등이다.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적절한 정서 표현을 하며 공감, 정서지각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를 들면 ‘또래가 말을 걸면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대한다’ 등이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 혹은 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88, 적응적 정서조절 .84로 나타났다.

3) 부모변인

(1) 부모 지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제작한 사회지지 척도 중에서 가족지지 문항을 부모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척도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께 고민을 이야기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를 정윤주(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표된다고 판단되는 1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척도문항의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더 못하게 막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곤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5로 나타났다.

(3) 부모감독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준호와 이동원(1995)의 부모감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척도 문항의 예를 들면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4로 나타났다.

(4)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영옥과 이정덕(1996)의 부부갈등 척도 중 문항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박민정(2002)의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척도문항의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서로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부모의 부부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다.

4) 또래에 의한 괴롭힘

아동이 경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Crick과 Grotpeter(1996)가 제작한 사회 경험 질문지(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SEQ)를 임지영(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박연정(2002)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관계상의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의 3하위영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척도문항의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 나만 혼자 남겨 진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하위영역을 합하였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부산시의 사하구와 부산진구의 각 1개교씩 2개 공립 초등학교를 임의 표집 하였으며 이들 두 학교에서 5학년과 6학년의 각 10학급씩 총 20학급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자들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장선생님

과 교감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412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과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동문제 점수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t-검증 결과

행동문제	남아 M(SD)	여아 M(SD)	t값
내재화	12.95(9.27)	14.91(9.66)	-2.10*
외현화	13.67(6.80)	13.02(7.10)	.942

* $p < .05$.

<표 1>에 의하면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내재화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

1) 남아

남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남아의 행동문제,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

		행동문제	
		내재화	외현화
정서조절 능력	부적응적	.526***	.474***
	적응적	-.127	.107
부모변인	부모지지	-.225**	-.078
	부모감독	-.048	-.031
	심리적통제	.270***	.153*
	부부갈등	.145*	.127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	.528***	.091

* $p < .05$. ** $p < .01$. *** $p < .001$.

<표 2>에 의하면 남아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은 내재화 행동문제($r = .526, p < .001$)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474,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남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할수록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남아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 2>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는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225, p < .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270, p < .001$)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153, p < .05$)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부부갈등은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145, p < .05$)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남아는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아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많을수록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부모감독과 남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또한 부모지지와 부부갈등과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표 2>에 의하면 남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내재화 행동문제($r = .528, p < .001$)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남아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험이 많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여아

여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여아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은 내재화 행동문제($r = .584, p < .001$)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660,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할수록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

〈표 3〉 여아의 행동문제,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

		행동문제	
		내재화	외현화
정서조절 능력	부적응적	.584***	.660***
	적응적	-.130	.026
부모변인	부모지지	-.377***	-.320***
	부모감독	-.172*	-.163*
	심리적통제	.386***	.311***
	부부갈등	.230**	.337***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	.325***	.147*

* $p < .05$. ** $p < .01$. *** $p < .001$.

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여아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 3〉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는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377, p < .001$)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320, p < .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감독은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172, p < .05$)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163, p < .05$)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386, p < .05$)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311,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표 3〉에 의하면 부모의 부부갈등은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r = .230, p < .01$) 및 여아의 외현화 행동문제($r = .337,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아는 부모 지지와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표 3〉에 의하면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내재화 행동문제($r = .325, p < .001$) 및 외현화 행동문제($r = .147, p < .05$)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아는 또래

에 의한 괴롭힘의 경험이 많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킬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각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를 성별로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각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는 남아 .452 여아 .507을 넘지 않았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회귀분석에 투입된 각 변수의 VIF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의 남아 1.689 여아 1.673 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남아

남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5〉와 같다.

〈표 5〉 남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행동문제		행동문제	
	내재화	외현화	내재화	외현화
	B	β	B	β
정서조절능력				
부적응적	.482	.342***	.475	.466***
적응적	.110	.081	.123	.126
부모변인				
부모지지	-.069	-.063	-.016	-.025
부모감독	-.015	-.017	-.064	-.038
부모심리통제	.338	.130*	.096	.051
부부갈등	-.011	-.048	.045	.028
또래괴롭힘	.356	.436***	-.018	-.030
상수	-12.018		1.086	
R ²	.451		.252	
F	21.321***		8.769***	

* $p < .05$. *** $p < .001$.

〈표 4〉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남아	여아	1	2	3	4	5	6	7	M(SD)
1.부적응적 정서조절			-.013	-.363***	-.123	.406***	.249***	.255***	20.51(7.84)
2.적응적 정서조절		-.030		.242**	.361***	.109	-.152*	-.379***	27.51(5.85)
3.부모지지		-.169*	.378***		.403***	-.272***	-.507***	-.269***	36.09(9.00)
4.부모감독		-.079	.248***	.418***		.006	-.327***	-.168*	13.68(3.95)
5.부모의 심리통제		.262***	.084	-.112	.029		.224**	.138	14.86(3.43)
6.부부갈등		.242***	-.152*	-.452***	-.219**	.173*		.232**	13.35(4.19)
7.또래괴롭힘		.311***	-.445***	-.369***	-.041	.184**	.267***		25.43(8.72)
M(SD)		19.53(6.60)	25.46(6.70)	35.58(9.97)	12.64(4.03)	15.93(3.57)	13.76(4.13)	31.30(11.27)	

대각선 위 : 여아, 밑 : 남아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 의하면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또래에 의한 괴롭힘($\beta = .436, p < .001$)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남아의 부적응적 정서조절($\beta = .342,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beta = .130, p < .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45.1% 설명 하였다. 또한 〈표 5〉에 의하면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부적응적 정서조절($\beta = .466, p < .001$)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2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여아

여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부적응적 정서조절($\beta = .441, p < .001$)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부모의 심리적 통제($\beta = .175, p < .0$), 또래에 의한 괴롭힘($\beta = .131, p < .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44.4% 설명 하였다. 또한 〈표 6〉에 의하면 여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부적응적 정서조절($\beta = .614, p < .001$)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부모의 부부갈등($\beta = .185, p < .01$)의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여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49.5%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 6〉 여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B	β	B	β
정서조절능력				
부적응적	.544	.441***	.560	.614***
적응적	-.190	-.110	.051	.040
부모변인				
부모지지	-.120	-.112	.020	.026
부모감독	-.003	-.001	-.173	-.092
부모심리통제	.497	.175**	.097	.046
부부갈등	.025	.011	.321	.185**
또래괴롭힘	.145	.131*	-.035	.043
상수	1.918		-3.077	
R ²	.444		.495	
F	20.635***		25.361***	

* $p < .05$. ** $p < .01$. *** $p < .001$.

결과로써 여아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부모의 부부갈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심리통제, 부부갈등의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 및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여아가 남아보다 많다는 연구(구미향, 이양희, 2003)와 일치하였으나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전연진, 정문자, 2003)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 혹은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 한 연구들(김민정, 도현심, 2001; 심희옥, 1997; 전연진, 정문자, 2003)과 일치하지 않았으나 공격과 비행의 외현화 행동문제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정현희, 정순화, 2007)와는 일치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성별 차이에 대한 결과의 불일치의 이유로는 각 연구의 시기, 혹은 연구대상 아동의 배경 변인 등 표본의 특성과 연구도구의 차이가 결과의 불일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추측된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특히 발달적 전환기인 학령기 후반의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성별 차이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행동문제의 성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할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과잉과 공격행동 및 여아의 미성숙행동과 부정적 정서조절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한유진, 2004)와 대체로 일치하였으며 성별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가 중요하다는 연구(황혜정, 1999)와 유사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행동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정서조

절과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적응적 정서조절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적절하게 타인에 대한 호의, 공감 등 긍정적 정서표현능력을 포함하므로 불안, 우울, 공격 등의 심각한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한유진, 2004) 이와 관련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난 연구(이영신, 2003)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며 자율적일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 자율, 성취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주원, 2005; 한영숙, 2006)와 유사하다. 이로써 자녀에 대한 따뜻하고 신뢰로운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감독은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감독과 중학생의 문제행동과의 부적관계를 보고한 연구(황숙영, 2007)와 유사하였다. 이로써 부모의 아동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지도는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및 공격성간에 정적 관계가 나타난 연구(전숙영, 2007; 정윤주, 2004)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로써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불안과 우울 및 위축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공격과 비행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아와 여아 모두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난 연구들(권영옥, 이정덕, 1999; 김선희, 2000; Holden & Ritchie, 1991)과 대체로 일치 한다.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하여 위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격이나 이탈행동의 외현적 행동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부모지지, 부모감독 및 부부갈등의 부모변인은 남아의 경우 내재화 행동

문제에만 여아의 경우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이들 부모변인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즉 낮은 부모지지와 부모감독 및 부부갈등이 여아의 경우 행동문제에 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리고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 할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나 따돌림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종효, 2004, 2005; 한종철, 김민경, 2000)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공격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이경남, 2001)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나 또래괴롭힘과 아동의 공격행동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최진희, 2000)와는 상반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과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행동문제 유형에 따라 공통되는 요인도 있었으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남아의 경우 외현화 행동문제에 여아의 경우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 정서조절능력이 남아의 경우 과잉, 공격행동문제와 여아의 경우 미성숙 행동문제와 부적관계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남아의 행동문제에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연구(한유진, 2004)와 대체로 일치 하였다. 또한 이는 남아의 주도적 공격성과 교사가 보고 한 공격성에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박혜경, 2001)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일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흥분,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의 강도가 높은 아동은 다양한 행동문제를 표출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또래에 의한 공

격피해가 내재화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종효, 2005), 또래로부터 높은 피해행동을 경험하는 아동이 우울과 불안을 표출한다는 많은 보고들(Boulton & Underwood, 1992; Owelus, 1993)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해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의 경험은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의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기는 또래관계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또래로부터의 거부나 괴롭힘의 경험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여 불안 및 우울을 비롯한 내재화 행동문제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또래괴롭힘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남아에게 더 두드러짐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의 우울과 불안에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전숙영, 2007; 정운주, 2004)와 유사하였으며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오환영, 2008)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로써 부모의 심리통제는 특히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정서적인 개입과 통제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야기하여 내재화 행동문제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여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남아와 여아의 공격과 미성숙행동에 대하여 정적관계는 있으나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부부갈등 상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권영옥, 이순형, 1999)와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행동문제가 많았으나 성별로 구분하면 특히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환영, 2008)와 상반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부부갈등이 남아와 여아의 행동문제에 관련이 있음은 확인 할 수 있으나 그 상대적 중요성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 할 때 부모의 부부갈등이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성별로 분석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으나 외현화 행동문제는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남

아와 여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며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하여 가장 위험한 요인이며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통제는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부부갈등은 여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예방하는 방안도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적절한 감독에 대한 내용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부갈등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아동의 행동문제를 완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언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행동문제의 관련된 변인으로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심리통제 및 부부갈등의 부모 변인,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한정되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아동의 행동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므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더 많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관련변인들에 대한 좀 더 통합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작용하여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 경로를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미향, 이양희(2003). 아동기 두려움과 행동문제의 특성 및 관련성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0(6), 117-131.
- 권영옥, 이순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0(4), 61-74.
- 권영옥, 이정덕(1996).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타당한 연구. **아동학회지**, 18(10), 65-79.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 이동원(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에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133-153.
-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 대전일보(2006.8.4). 초등학교 4명중 1명은 정서 행동장애 가능성.
- 박민정(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인 변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서정(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전략 및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연정(2002).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또래 괴롭힘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효(2004). 기질과 또래관계가 문제행동 및 학습수행에 미치는 영향 : 구조방정식 분석. **교육심리연구**, 18, 41-57.
- 박종효(2005). 또래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대한 이해 : 선행요인 탐색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8-34.
- 박혜경(200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지영(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오경자, 이해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I :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35.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환영(2008).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변인 및 또래공격피해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8), 37-52.
- 이경남(2006). 아동의 개인, 가족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31-44.
- 이경남(2008).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영신(2003).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원(2005).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영(1998).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연정(200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전연진, 정문자(2003).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8), 139-158.
- 정문자, 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미경,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8.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현희, 정순화(2007).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유능성 지각과 문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5(7), 93-103.
-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끼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숙(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구 : 초등학교 5, 6학년 을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저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한유진(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한종철, 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 103-114.

- 황숙영(2007). 부모애착, 부모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1999).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3(1), 67-84.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oul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icchetti, D., & Toth, S. L.(1998).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practice in developmental psychology. In W. Damon(Series Ed.), I. E. Siegel, & K. A. Renning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Child psychology in practice*(5th ed., pp479-583). New York: Wiley.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367-380.
- Holden, G. W., & Ritchie, K. L.(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McGee, R., Freehan, M., Williams, S., & Anderson, J. (1992). DSM-III disorders from age 11 to age 15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50-59.
- Olweus, D.(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R.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315-3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r, J. G., Rubin, K. H., Price, J., & Deroiser, E.(1995).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In D. Cicchetti & E. Cohen(Ed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 Risk, disorder, and adaption*(pp.96-161). New York: Wiley.
- Patterson, G. R., Babara, D., DeBaryshe,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ettit, G. S., Lai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2002).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Shaffer, D.(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 Shields, A., & Cicchetti, D.(1998). Rela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접 수 일 : 2009년 4월 28일

심사시작일 : 2009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6월 15일